

#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에 대한 기초 연구

송두범 지역개발연구부장, 연구위원

## 1.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치관과 도덕성의 붕괴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즉, 전통의 덕목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나 규범 등은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나 효와 같은 전통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정신적인 자산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역사 문화적으로 볼 때 많은 충신, 열녀, 예학자들을 배출하여 충효의 고장이라 불리어 왔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예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의 교육은 학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예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예절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세계화 시대 국제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에티켓 등을 학습·교육할 수 있는 예교육의 도량으로서 가칭 '충청남도 예절관'을 설립하기 위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건립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탈물질적 가치관과 학습사회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통한 외형적,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인간성의 회복, 자아실현 등과 같은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슬로우(Maslow, 1954)는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이들의 강도에 따라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즉,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를 향해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그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는 소위 욕구 단계설(needs hierarchy)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물질주의 가치관이 충족되면, 인간은 참여와 자아실현, 자기표현 등을 중시하는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이제 물질적인 욕구보다 상위의 욕구인 예절이나 효와 같은 덕목을 중시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탈물질적인 가치관은 예절이나 효라는 사실<sup>1)</sup>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탈물질적인 가치관은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생애를 통해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편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시기의 항상성과 계속성, 교육장소의 광범성과 무정형성,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다원성, 교육방법의 다양성과 입체성, 교육대상의 전체성과 평등성, 교육담당자의 다양성과 탈정형성 그리고 교육접근 및 교육적 의사소통의 용

## 우리나라 전통예절의 교육·연구·전시·공연장소의 미비와 이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예절관 설립은 필요

통성과 순환성, 쌍방성을 전제로 하는 학습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사회 실현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예절바른 도민 의식 함양, 예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sup>2)</sup>, 유아 및 어린이 인재교육 체질화, 예절교육 체제와 실천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칭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은 예학의 본거지로서 수준 높은 예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을 위한 지역사회 예절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3. 예절관 건립의 기본구상

#### 1) 예절관 건립의 의의

우리나라 전통예절의 교육 연구 전시 공연장소의 미비와 이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예절관 설립은 필요하다. 또한 예절관은 전통 예절에 대한 학술연구,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 전통예절 관련 전시 및 공연, 전통예절의 관광상품화 등이 그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예절관은 연구기능, 평생문화학습 기능, 전시기능, 공연기능,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예절관련 자료의 출판 및 홍보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절관 건립을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 지역경제 및 관광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향수 제고와 자긍심 고취, 지역이미지 창출 및 개선, 지역문화의 중심체, 지역간 교류, 예절에 대한 교육을 통한 파급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

#### 2) 기본구상

예절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예절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전통예절을 포함시키며 그 시설설치를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절관 설립유형은 시설활용에 따른 유형과 입지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시설활용에 따른 유형은 신규설립, 기존시설 활용, 기존시설에 부여하는 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신규설립은 바람직하지만, 재원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기존시설 활용은 폐교 향교 서원 충남평생학습회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존시설에 기능부여하는 형은 충남도 교육청이 운영

1)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의 잉글하트(Inglehart) 교수와 독일의 클린게르만(Klingerman) 교수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가치조사 설문(World Value Study Questionnaire)을 이용하여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세계 48개국에서 실시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s) 자료(은기수 외,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정책연구과제, 교육부, 1999참고).

2)충청남도에서는 건양대학교 예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예절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다(<http://www.ye365.or.kr/>).

하는 충무수련원 등에 예절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절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절관 입지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후지의 인구규모, 주변지역에 예절관과 관련 있는 우수한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환경 보유 여부, 접근성, 주변문화시설이나 레저시설과의 연계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자연환경 사회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절관 건립시 도입가능한 시설은 전통예절 연구관, 교육관(생활관), 전통놀이장, 예절공연장, 예절자료관(도서관), 공공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 예절관련 역사문화유적 탐방시설 등이다. 또한 도입가능한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 4.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예절관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해 투자계획의 효율성 추구, 단계별 개발추진, 민자유치 활성화, 행정지원체제 개선, 개발역기능 최소화, 제도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방식은 수탁개발, 단독개발, 전면공영개발, 부분공영개발, 제3섹터 개발방식 등이 있으며, 토지확보방안은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확보와 제3섹터개발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sup>3)</sup>

투자계획은 효율적인 예절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별로 구분하며, 사유지 및 국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2002~2003년)는 예절관 건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 2단계(2004년)는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 3단계(2005년)는 사업시행, 목표연도인 4단계(2006~2007년)는 종합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여기서는 신규설립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공익성사업은 국가 및 예절관 입지 시·군 또는 공공기관, 수익성 사업은 민간투자를 기본전제로 한다. 충청남도나 도 교육청의 주도 하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되, 제3섹터 조직이나 민간기업이 수익성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한다.

예절관은 교육 문화시설로서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도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하며, 충분한 관리인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예절관의 건립주체는 예절관의 성격상 관리 운영의 주체는 기업이, 정책적 행정적 지원은 공공,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이나 충청남도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

#### 5. 정책제안

##### 1) 예절관의 성격 규정

예절관은 연구 교육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전시 및 공연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절관의 성격은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예절관이 주축이 되어, 평생학습원,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학생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관련 프로그램들과의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예절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예절관이 수행하는 교육 문화적 기능으로 볼

때 예절관을 문화시설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절관의 물리적 시설기준은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설립주체

예절관의 설립주체는 공공, 민간, 제3섹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공으로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보다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예절관은 교육 기능이 제일의 기능임)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민간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의 협조를 얻어 기업연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예절교육이 공공교육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섹터로 추진할 경우 공공은 시설설립을 민간은 운영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 3) 설립유형

예절관의 설립유형도 신규건립, 기존시설 이용, 기존시설에 기능부여하는 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신규설립은 배후지 인구 대도시와의 접근성 유교관련 역사 문화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고 예절관의 성격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인 예절연수원과 같이 기능적으로는 율곡연수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독립된 지역에 독립건물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능적으로도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이나 학생수련원에 분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기존시설 이용은 폐교·향교·서원·충남평생학습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폐교를 이용하여 건립할 경우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문당은 학교중 규모, 입지(접근성,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교를 이용하여 건립할 경우 대부분의 향교가 접근성이 양호하고, 본래의 기능인 교육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례기능의 시연을 통한 현장학습 경험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절관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연구기능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복합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향교가 대부분 지은지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독립건물의 신축이 필연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교를 관리하는 재단과 협의하여 설립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예절교육을 목적으로 한 활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서원들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건축연도가 비교적 오래되어 예절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서원을 예절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서원이 읍면 단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도시 인근의 서원 중에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부지확보 및 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면 서원을 이용한 예절관 건립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한편, 운수연수원의 폐지가 논의됨에 따라 운수연수원을 예절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만 하다.

셋째, 현재 충청남도나 충청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무원교육원, 충무수련원 등의 기관에 예절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을 예절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이는 기존시설의 목적사업과 중복, 업무과중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 4) 행정기관의 역할

예절관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설립주체를 결정하고, 그 주체가 중심이 되어 가칭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 기획단'이나, "충청남도 예절관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에서는 예절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2764호)를 제정하였다. 충청남도에서도 예절관을 설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조례제정)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절관의 유치에 대한 시·군 지역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면, 시·군을 대상으로 예절관 설립(신규건립, 기존시설이용, 기존시설에 기능부여 등)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이를 평가하여 최종설립지역 및 설립유형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예절관련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공통교재의 개발, 예절관련 강사 풀(pool)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예절관련 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공은배,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2000년도 평생교육정책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한국평생교육학회, 2000.6.15.
- 교육부,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000.
- 김도수, 평생교육, 양서원, 1999.
- 김시중, 한국예절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 시론, 1999.
- 김시중, 한국 예절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 시론,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9.
- 대구대학교 사회교육과정부, 사회교육개론, 청림출판사, 1992.
- 신원득 외,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 2000.
- 은기수 외,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정책연구과제, 교육부, 1999.
- 이흥재 외, 문화시설의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 임선빈, "향교의 연혁과 운영실태," 충남의 향교, 충청남도, 1999.
- 정영선, 문단은 학교(폐교)의 효과적 활용방안(2), 문화도시 문화복지, 41호, 서울: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7.
-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도백년:충남 새로운 출발, 1996.
- 한기범, "향교의례와 그 기능," 충남의 향교, 충청남도, 1999.
- Peter Jarvis, "Paradoxes of the Learning Socie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ifelong Learning, ed. John Holford, Peter Jarvis and Colin Griffin London:Kogan Page, 1998.
- Richard Edwards etc, "Recent Thinking in Lifelong Lear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search Briefs"; available from <http://www.dfes.gov.uk/research/report80.html>; accessed 15 May 2000.
- 日本生涯教育學會, 生涯學習事典, 東京書籍, 1997.
- <http://www.ye365.or.kr>